

한·미FTA 발효 10년,
경남 對미 수출입 변화와 FTA 효과

2023. 9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발효 10년을 맞은 한·미FTA가 경남 수출입과 산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 경남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한국무역협회, 한·미FTA 협정문 자료 분석

3. 조사기간

2023년 9월 4일 ~ 22일

4. 조사사항

- 경남 對미 수출입 동향과 주요 교역품
- 경남 對미 주요 교역산업의 무역특화지수
- 경남 한·미FTA 수혜품목 실적 변화와 효과

II. 요약 및 시사점

○ 미국은 경남의 전통적인 주력 교역국

- 경남 전체 수출의 21.2%, 수입의 11.7% 차지
-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냉장고, 건조기, 굴삭기 등 완성품 내구소비재
23년 상반기 기준, 철도용 객차(68.5%), 건조기(40.7%), 접시세척기(33.1%), 세탁기(23.9%), 금속절삭가공선반(19.2%) 등의 품목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 항공기엔진·부품, 철·비철금속 등 자본재와 원자재
23년 상반기 기준, 항공기 터보프로펠러(100.0%), 선박용 터보제트(100.0%), 사료용 양조·증류 잔여물(100.0%), 기타 고무제품(85.7%)

○ 한·미FTA 발효 이후, 주요 교역산업의 수출특화도 더욱 뚜렷해져...

- 경남 對미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2010년	2022년		2010년	2022년
수송기계	0.18	→ 0.65	전자제품	0.98	→ 1.00
산업기계	0.56	→ 0.95	고무제품	0.90	→ 0.95
기초산업기계	-0.05	→ 0.70	공구·금형	-0.29	→ 0.28

○ 경남 對미 상위 50개 수출·입 품목, 2021년 이후 모든 수출·입 관세 철폐

- 상위 50개 수출품(전체 84.8%) 중 수혜품목 34개(평균기본관세율 3.2%)
34개 수혜품목 1.0%~5.8%의 기본관세 철폐
- 상위 50개 수입품(전체 66.3%) 중 수혜품목 45개(평균기본관세율 6.0%)
45개 수혜품목 1.0%~20.0%의 기본관세 철폐

○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지속 증가

(수출) 2012년 243억 7천만 원 → 2022년 1,200억 4천만 원

수출단가 경쟁력 강화효과 확대,

경남의 對미 시장확보 및 유지에 긍정적 영향

(수입) 2012년 822억 7천만 원 → 2022년 870억 7천만 원

직접적 수입단가 인하효과 확대,

對미 수입의존도 높은 항공기 핵심부품 및 원자재성 제품의 수입단가 인하로 당 산업의 채산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

II. 개 황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통상 정책의 기조¹⁾를 FTA²⁾ 중심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9월 기준 59개 국가와 21건의 FTA를 발효했음.
-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발효된 바 있음. 발효 이후 양국은 전체 교역 품목 중 한국은 98.3%, 미국은 99.2%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양허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지재권, 정부조달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됨.
- 경남산업에 있어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무역상대국이자,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FTA는 경남의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경남의 對미 무역수지는 지역 수출입통계가 발표된 2000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남의 對미 수출실적이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음.
무엇보다 한·미FTA가 체결된 2012년 이후 경남의 對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교역하는 상품의 종류도 꾸준히 증가해왔음.
- 동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경남산업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파악해, 한·미FTA의 필요성을 조망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관의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함.

1) 1998년 11월 개최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공식 의결하고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후 세계 주요국가들과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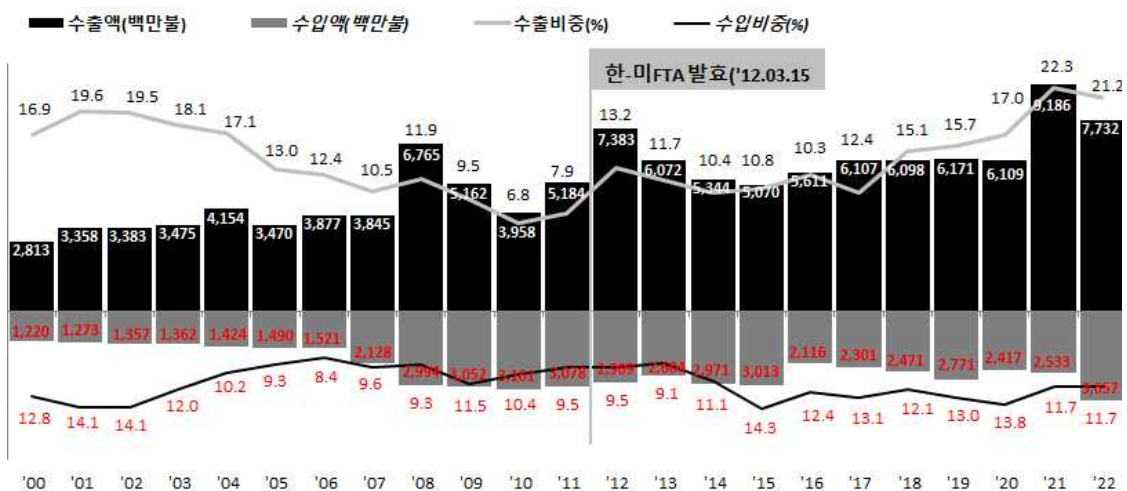
2)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Ⅲ. 경남 對미 수출입 동향과 주요 교역품

1. 경남 對미 수출입 동향

- 경남 수출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며, 전통적인 주력 수출국가임. 자동차·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내구소비재 수출이 주를 이루며, 항공기부품·엔진·기체압축기·알루미늄·주단조품 등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0년대 경남의 對미 수출 비중은 對중 수출의 비중 증가와 세계 조선시장 급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를 보였음. 2012년 이후 세탁기와 승용차 등 對미 내구소비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조선업 수출(선박 수출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은 감소하며 수출비중이 커졌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의 경우 경남의 對미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남산업에 있어 미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있음.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과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경남수출에 있어 미국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음.

경남 對미 수출입 동향



<자료 : KITA.NET>

2. 경남 對미 주요 교역품

1) 경남 對미 주요 수출품

- 경남의 對미 수출품은 기계류(HS 84류)와 일반차량(HS 87류)이 대부분을 차지함. 2023년 상반기 기준 경남의 對미 수출품은 ‘승용차(실린더용량 1,000~1,500cc)’ 8억 8,022만 불, ‘냉장·냉동고’ 5억 6,513만 불, ‘건조기’ 2억 7,758만 불, ‘자동차부품’(새시) 2억 6,108만 불, ‘세탁기’ 1억 6,931만 불, ‘굴삭기’ 1억 6,514만 불, ‘접시세척기’ 1억 4,196만 불 등 승용차, 가전제품 등 완성품 내구소비재와 그 부분품들이 주를 이룸.
- 경남의 對미 20대 수출품 중 기존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부품(새시)’, ‘굴삭기’, ‘비행기·헬리콥터부품’,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오븐, 조리기기’, ‘항공기용 가스터빈’,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 등 8개 품목임. 이들 품목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무관세를 지속하는 형태의 양허유형인 ‘K’유형에 해당하며, 한·미FTA 발효 전부터 對미 주력 수출품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승용차’(기본관세 2.5%), ‘건조기’(2.6%), ‘세탁기’(1.0%), ‘자동차용 타이어’(4.0%), ‘가정형 접시세척기’(2.4%), ‘금속절삭가공선반’(4.4%),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4.2%),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4.7%), ‘자동차부품(구동 차축)’(2.5%), ‘차량용 피스톤엔진(실린더용량 1,000cc 초과)’(8.0%),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5.0%),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5.7%) 등 12개 품목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들로 발효 10년(11년차)이 된 현 시점에서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음.
-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³⁾을 보면,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의 경우 68.5%로 경남 對미 20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이 밖에 ‘건조기’ 40.7%, ‘가정형 접시세척기’ 33.1%, ‘세탁기’ 23.9%, ‘금속절삭가공선반’ 19.2%, ‘냉장·냉동고’

3) 동 품목 미국 전체 수입에서 경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16.7%,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11.0%, ‘오븐, 조리기기’ 8.7%, ‘승용차’ 8.0% 등 대체로 단일 품목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경남 對미 주요 수출품(2023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품목 코드 (HS)	품 목 명	'23 상반기 對미 수출액 (천불, %)	관세율 (%)			미국 수입내 비중 (%)
				기본	한미 FTA	양허 유형	
1	870322	승용차 (실린더용량 1,000~1,500cc)	880,215 (761.7)	2.5	0.0	A	8.0
2	841810	일체형 냉장·냉동고	565,128 (-12.7)	0.0	0.0	K	16.7
3	845129	건조기	277,583 (-18.4)	2.6	0.0	G	40.7
4	870899	자동차 부품(새시)	261,082 (3.2)	0.0	0.0	K	3.2
5	845020	세탁기 (세탁 능력 10kg 초과)	169,307 (-19.1)	1.0	0.0	G	23.9
6	401110	자동차용 타이어 (승용차, 경주차용)	166,551 (1.8)	4.0	0.0	D	3.6
7	842952	굴삭기 (360도 회전구조를 가진 기계)	165,139 (47.8)	0.0	0.0	F	4.6
8	842211	가정형 접시세척기	141,956 (-11.1)	2.4	0.0	G	33.1
9	880730	비행기·헬리콥터 부품	129,604 (5.4)	0.0	0.0	K	2.2
10	845811	금속절삭가공선반 (수치제어식)	91,642 (6.7)	4.4	0.0	A	19.2
11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91,371 (-32.8)	0.0	0.0	K	6.9
12	851660	오븐, 조리기기 (전기오븐, 전기밥솥 등)	88,940 (-29.5)	0.0	0.0	K	8.7
13	841191	항공기용 가스터빈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의 것)	87,254 (48.3)	0.0	0.0	K	1.2
14	845710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85,159 (13.9)	4.2	0.0	A	11.0
15	84149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	73,662 (7.7)	4.7	0.0	G	6.7
16	870850	자동차 부품(구동 차축)	61,169 (-11.8)	2.5	0.0	A	2.0
17	840734	차량용 피스톤엔진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56,563 (8.0)	2.5	0.0	A	1.1
18	481019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	55,619 (37.5)	0.0	0.0	K	14.3
19	860500	철도용 객차 (자주식 객차 제외)	49,991 (97.7)	5.0	0.0	A	68.5
20	7321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가스레인지 등)	47,423 (-7.3)	5.7	0.0	G	4.4
총계			4,671,938 (13.8)				

※ 한·미FTA 양허유형

- | | |
|---------------------------|---------------------------|
| A : 발효일로부터 무관세(즉시철폐) | B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2단계 균등 철폐 |
| C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3단계 균등 철폐 | D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5단계 균등 철폐 |
| E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6단계 균등 철폐 | F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7단계 균등 철폐 |
| G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10단계 균등 철폐 | H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15단계 균등 철폐 |
| K : 무관세 지속 | |

<자료 : KITA.NET, 관세법령정보포털, 산업통상자원부>

2) 주요수입품

- 경남의 對미 수입품은 항공기 엔진 및 부품(84류, 88류, 90류)과 원자재성 제품(27류, 72류, 73류, 76류)이 주를 이룸. 2023년 상반기 기준 경남의 對미 수입품은 ‘천연가스’ 9,102만 불, ‘알루미늄 웨이스트, 스크랩’ 7,314만 불,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7,238만 불, ‘기타 알루미늄합금 제품’ 5,606만 불, ‘기체압축기 부분품’ 4,085만 불, ‘항공기 부분품’ 2,982만 불, ‘알루미늄 프로파일’ 2,543만 불,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출력 1,100KW 초과)’ 2,428만 불 등임.
- 경남의 對미 20대 수입품 중 기존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항공기 부분품’과 ‘단백질 식료품’ 등 2개 품목임. 이들 품목은 한·미 FTA 발효 이전에도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져 기존 무관세를 지속하는 형태의 양허유형인 ‘K’유형에 해당함.
- 반면, ‘천연가스’(기본관세 1.0%), ‘알루미늄 웨이스트, 스크랩’(1.0%),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3.0%), ‘기체압축기 부분품’(8.0%), ‘알루미늄 프로파일’(8.0%),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8.0%), ‘철 웨이스트, 스크랩’(1.0%), ‘선박용 터보제트(추진력 25KN 초과)’(8.0%), ‘항공·우주항행용 기기’(8.0%), ‘티타늄 제품’(8.0%), ‘기타 철강 제품’(8.0%) 등은 2012년 발효 당시 관세가 철폐되어 현재 무관세(양허유형 ‘A’)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 ‘기타 알루미늄합금 제품’(3.0%), ‘기타 선박용 엔진(출력 5,000KW 이하)’(8.0%)은 발효 후 3년에 걸쳐 관세가 균등 철폐(양허유형 ‘C’)되었음.
-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경남 전체 수입 내 비중⁴⁾을 보면,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 ‘선박용 터보제트’, ‘사료용 양조·증류 잔여물’ 등 3개 품목은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이 밖에 ‘기타 고무제품’ 85.7%, ‘기타 선박용 엔진’ 76.9%, ‘기타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67.6%, ‘단백질 식료품’ 64.4%, ‘알루미늄 프로파일’ 59.7%,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51.4%,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등 주요 20개 품목 중 10개 품목의

4) 동 품목 경남 전체 수입에서 미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수입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단일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관세철폐는 기본관세율 만큼 수입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어 기업의 재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남 對미 주요 수입품(2023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품목 코드 (HS)	품 목 명	'23 상반기 對미 수입액 (천불, %)	관세율 (%)			경남 수입내 비중 (%)
			기본	한미 FTA	양허 유형	
1	271111 천연가스	91,019 (-82.8)	1.0	0.0	A	2.3
2	760200 알루미늄 웨이스트, 스크랩	73,138 (-21.6)	1.0	0.0	A	42.8
3	841191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72,377 (1.8)	3.0	0.0	A	51.4
4	760612 기타 알루미늄합금 제품	56,058 (185.7)	8.0	0.0	C	36.5
5	841490 기체 압축기 부분품	40,849 (28.9)	8.0	0.0	A	48.1
6	880730 항공기 부분품	29,821 (-3.9)	0.0	0.0	K	31.1
7	760429 알루미늄 프로파일	25,429 (168.2)	8.0	0.0	A	59.7
8	841122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 (출력 1,100KW 초과)	24,279 (50.6)	8.0	0.0	A	100.0
9	720449 철 웨이스트, 스크랩	21,380 (38.9)	1.0	0.0	A	31.0
10	210690 단백질 식료품	17,666 (-1.5)	0.0	0.0	K	64.4
11	841112 선박용 터보제트 (추진력 25KN 초과)	17,332 (-17.9)	8.0	0.0	A	100.0
12	901420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방향탐지용 컴퍼스 제외)	14,237 (111.8)	8.0	0.0	A	50.7
13	810890 티타늄 제품	13,995 (86.7)	8.0	0.0	A	39.5
14	732690 기타 철강 제품	13,169 (-19.7)	8.0	0.0	A	21.4
15	841181 기타 선박용 엔진 (출력 5,000KW 이하)	11,871 (4130.2)	8.0	0.0	C	76.9
16	230330 사료용 양조·증류 잔여물	10,436 (-11.4)	5.0	0.0	A	100.0
17	901480 기타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9,640 (-23.9)	8.0	0.0	A	67.6
18	400239 기타 고무제품	9,351 (28.3)	5.0	0.0	A	85.7
19	848180 기타 전기작동식 밸브	8,688 (-35.8)	8.0	0.0	A	14.0
24	853669 케이블 접속용 부품	8,194 (32.5)	8.0	0.0	A	50.1
총계		1,096,982 (-31.2)				

※ 한-미FTA 양허유형

A : 발효일로부터 무관세(즉시철폐)

B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2단계 균등 철폐

C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3단계 균등 철폐

D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5단계 균등 철폐

E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6단계 균등 철폐

F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7단계 균등 철폐

G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10단계 균등 철폐

H : 발효일로부터 연도별 15단계 균등 철폐

K : 무관세 지속

<자료 : KITA.NET, 관세법령정보포털, 산업통상자원부>

IV. 경남 對미 교역과 한·미FTA 효과

1. 경남 對미 주요 교역산업의 무역특화지수

- 경남과 미국 간 이루어지는 주요 교역품목은 수송기계, 광물성연료, 가정용 전자제품, 산업기계, 기초산업기계, 고무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공구·금형 등임.
- 이들 품목의 경남과 미국 간 최근 15년의 무역특화지수⁵⁾ 변화를 살펴보았음. 한·미FTA 발효 전(2007년, 2010년)과 발효 후(2012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송기계’의 경우 2007년 ‘0.47’ 수준으로 경남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발효 후부터는 특화도가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는 ‘가정용 전자제품’, ‘산업기계’, ‘기초산업기계’, ‘고무제품’ 등에도 나타났음.
- 반면, 수입에 특화된 ‘광물성 연료’의 경우 한·미FTA 발효 전인 2007년 ‘-0.86’ 수준으로 경남이 수입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발효 이후에는 ‘-1.00’으로 완전수입특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비철금속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특화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철강제품’과 ‘공구·금형’의 경우에는 발효 이전 수입에 특화되어 있었으나, 발효 이후에는 수출에 특화되어 교역구조의 변화를 이루었음.

경남 對미 주요 교역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 추이

연도	수송기계	광물성연료	가정용전자제품	산업기계	기초산업기계	고무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공구·금형
‘07	0.47	-0.86	0.98	0.81	0.02	0.68	-0.24	-0.90	-0.13
‘10	0.18	-0.87	0.98	0.56	-0.05	0.90	-0.49	-0.95	-0.29
‘13	0.61	-0.96	0.99	0.85	0.29	0.93	-0.07	-0.87	-0.06
‘16	0.56	-0.78	0.97	0.93	0.58	0.94	0.35	-0.78	0.15
‘19	0.54	-1.00	0.97	0.90	0.35	0.95	0.30	-0.87	0.35
‘22	0.65	-1.00	1.00	0.95	0.70	0.95	0.50	-0.58	0.28

<자료 : KITA.NET>

5)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특정 업종의 순수출액을 총교역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수출경쟁력을 알아보는 지수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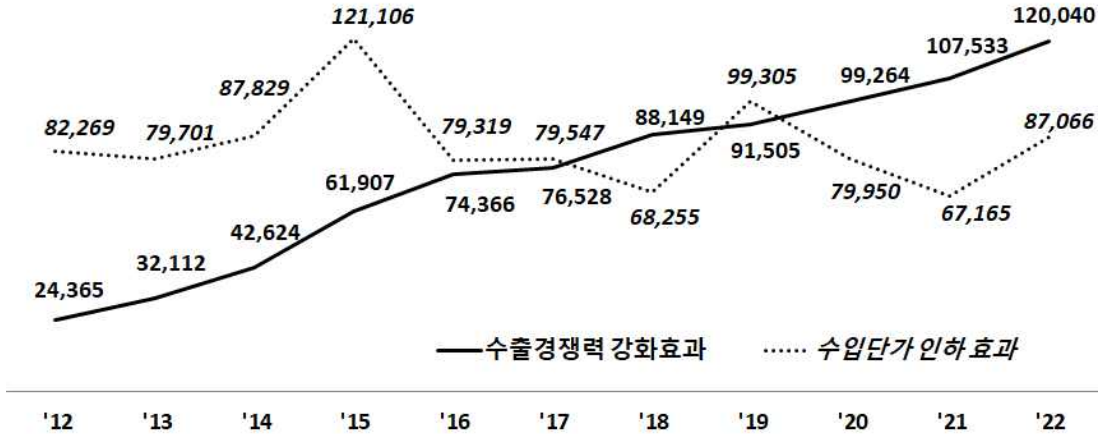
2. 경남 한·미FTA 수혜품목 실적 변화와 효과

-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2년 간 경남 對미 상위 50개 수출입 품(HS 6단위)을 대상(기존 무관세 품목 포함)으로 한·미FTA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인 수출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출의 84.8%) 중 34개(평균 기본관세율 3.2%)는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16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0%로 FTA와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임.
수입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입의 66.3%) 중 45개 품목(평균 기본관세율 6.0%)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5개 품목은 한·미FTA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진 품목임.
품목별로 관세철폐의 시기는 양허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나, 분석 대상인 경남 對미 수출입 50대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는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 철폐되었음.
-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즉시철폐(A)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의 경우 243억 7천만 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수출단가 경쟁력)를 얻었음. 이러한 수출단가 경쟁력 효과는 단계별 철폐에 따른 무관세 품목의 증가와 수출물량의 증가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22년의 경우 1,200억 4천만 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음.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수입자의 수입단가를 낮추는 한편 수출자로 하여금 가격경쟁력 강화효과를 주기 때문임.
- 수입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실질 수입단가 인하효과는 2012년의 경우 즉시철폐(A) 품목을 중심으로 82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870억 7천만 원으로 다소 확대되었음.
경남의 對미 수입품의 경우 항공기 핵심부품과 원자재성 제품을 중심으로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는 해당산업의 채산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도별 한·미FTA 특혜관세 효과(수출입단가 인하 효과)

(단위 : 백만원)



※ 원화표시 환산은 연간 평균환율 적용

<자료 : 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3년 기준 경남의 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73.4%, 수입 84.5% 수준으로 점진적인 활용률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FTA를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 생산성과 물류와 같은 영업활동 이외에도 FTA는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임. 실제로 경남지역 기업은 기업의 체감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FTA 활용'을 꼽고 있음.⁶⁾
- 1.0% ~ 20.0% 수준(경남 對미 50대 수출·입품목 기준)의 기본관세를 기업의 수익성 확보나 수출채산성 확대에 활용하는 일은 기업의 FTA 활용률에 달려있음. 대기업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품목분류의 재정립, 원산지관리 효율적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한·미FTA의 활용률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6) 경남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통상환경 변화와 실적 영향조사, 창원상공회의소, 2023